



님 포 매 니 어

—여 자 색 정 광—

鄭 海 岩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썬물이나 강 또는 숲과 동굴에 젊고 아름다운 나상의 여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특히 썬이나 호숫가에 이런 여신들이 떼를 지어 해업을 치고 달리면서 노는데 행동은

자유분방하고 대담하여 성적유희 또 한 거침없이 즐기는 것이었다고 한다. 마음만 내키면 지나가는 나그네와 목욕도 하고 어울려 성적 만족을 주고 받기마져하는 처녀신들, 이들을 닮프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매니어(mania=광기)란 단어를 복합시킨 님포매니어는 여자의 색정광 즉 여자음란증이란 의학적 용어가 되어 버렸는데 성적 충동을 참을 수가 없어 한 사람의 애인과는 도저히 만족되지 않아 다수의 남자를 가지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여성을 가르키는 일종의 성도착증이 된 것이다. 물론 성욕의 강도에 변칙적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돈판이나 카사노바 같은 남자 호색증의 「새토라이어시스」와 같은 통속이다.

성종때 승문원 지사 박운창의 딸 어을우동(於乙宇同)의 색정이야기는 용제총화속에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증실인 태강수와 결혼하였으나 은그릇 만드는 장인과 놀아나다 꼬리가 잡혀 쫓겨났다. 그러나 회개는 커녕 더욱 방자하여 종을 하나 두고 거리에 내보내 미색소년을 끌어드려 서로 즐기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냈다. 결국 장안 화제가 되어 관가에서 문초를 받게 되니 이 때 대답이 또한 결작인데 서울



에 사는 남자중에 코큰 사람치고 관제가 없었던 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더구나 흠뻑 얻어 맞고 관가에서 풀려나올 때 종년이 어을우동의 허리를 잡고 하는 말이 여기만 튼튼하면 무슨 상관이었겠느냐고 했다하니 과연 호색에 철저하기로 이정도 죽이 맞기도 힘들 것이다.

오죽해야 「어을우동 배알치기」란 속담까지 생겼을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병적 음란증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 엄격히 말해서 이 색정광은 어떤 문제에 부다치거나 힘겨운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불안을 해소해 버리려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강박적 입장에서 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예측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것이다.

자칫 남자쪽에서 여자의 생정광을 오해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우선 남녀간의 성적 반응의 차이를 모르는 까닭에 많은 부인들이 오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오르가즘의 회수와 관계된다. 서를 애기 끝에 자기 아내가 한번에 너더 뱃번의 극치감을 갖는다는 사실에 색정광이 아니냐고 갑작스런 의구심을 갖는 수가 허다한 것이 그 좋은 예일지 모른다. 다른 부인들은 그러한 두번, 그것도 어쩌다가 갖는 즐거움이라 하는데 우리집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는 의심 많고 소심한 남편은 더러 아내를 색정광으로 몰아 혹시 못 남자와 음란증을 만들지 않나 눈에 불을 키고 감시마저 하는 사래까지도 생기는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것은 어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시 생리적으로 남자가 빈번한 성교를 요구하는데 비하여 매번 한번의 쾌감으로 끝나지만 여자는 적절한 성적 흥분자극이 지속되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피로한 일장이 아니고서는 무수한 극치감의 산을 넘고 또 넘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생리적 정상반응의 결과를 놓

고 색정광이라고 취급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도 보통을 넘어서는 격이 될 것이다.

정말 병적 색정광은 이팔 청춘기에 성적 소의감을 지나치게 보상하려는 심사때문에 생기거나,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할 목적으로 반복하여 하는데서 비롯되기도 한다. 마치 공부가 안되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재수생이 자위행위로 긴장을 풀듯 강박적으로 행하려는 그런 심정이 있어서이다.

또는 육체적 미끼로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어린아이스런 방법이 계속 마음속에 자리잡거나 혹시 불감증에라도 걸리지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려는 데서 시발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단 색정광이 생기면 자신의 가치관을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치료원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은 물론이다.

<필자=경희의대 외래교수·

정신과 전문의·의박>

■ 기생충 박멸표어

마을마다 집집마다

기생충 검사받자